

광주 재취업 여성 절반이 비정규직

4명 중 3명은 월 급여 100만원 이하 서비스·판매, 생산기능직 위주 취업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이하 광주새일본부)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의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이고 4명중 3명은 월급여 100만원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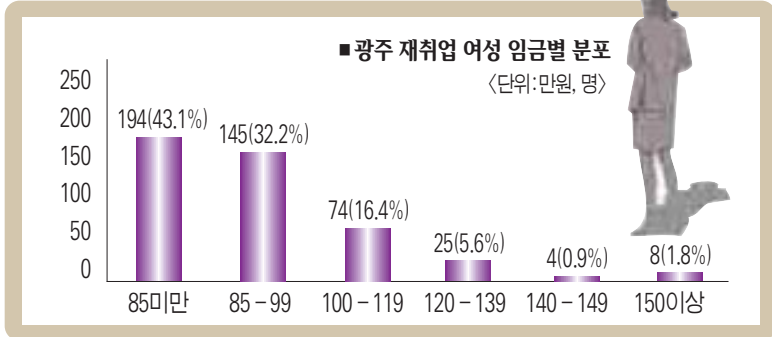
15일 광주새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소이후 6개월동안 본부 알선을 통해 취업한 ‘재취업 여성’은 모두 45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51%, 비정규직은 49%로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보였다. 특히 월급은 85만원 미만이 43.

1%, 85~99만원이 32.2%로 100만원 이하가 전체의 75.3%나 됐다. 여성 재취업자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셈이다.

직종별로는 서비스·판매직이 3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생산기능직 35%, 사무관리직 18%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0%, 30대 33%, 50대 이상 21%, 20대 6% 등이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54%, 초



졸 이상 36%, 중졸 10% 순이었다.

광주새일본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비정규직이고 임금이 낮아도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새일본부는 광주시가 여

성들의 재취업 알선을 위해 여성·노동관련 조직에 위탁해 운영하는 단체로, 취업설계사들이 현장 상담을 통해 경력이 끊긴 여성들의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세계로 가는 첨단휴대폰

삼성전자는 16~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 전문 전시회인 ‘커뮤니아시아 2009’(Communic Asia 2009)에 참가, ‘픽슨12’, ‘갤럭시’, ‘옵티아 프로 시리즈’ 등 하반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첨단 휴대폰과 스마트폰 라인업을 전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16~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 전문 전시회인 ‘커뮤니아시아 2009’(Communic Asia 2009)에 참가, ‘픽슨12’, ‘갤럭시’, ‘옵티아 프로 시리즈’ 등 하반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첨단 휴대폰과 스마트폰 라인업을 전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일자리 나누기 지원 늘린다

광주노동청, 교대제 도입 등 고용 지원금 확대

지역 근로자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 유지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광주지방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는 15일 “이달부터 ‘교대제 전환지원금’제도가 신설돼 교대근무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를 늘려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기업은 전환 뒤 6개월동안 단축 근로 시간 임금의 3분의 1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대제 전환지원금은 감원이 불가피할 때 불구하고 사업주가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교대 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실시중인 기업이 근무조수를 2조→3조 또는 3조→4조 등으로 전환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정 수 준(하루 최대 4만5천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영 악화에 처한 사업주가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존 고용유지 제도를 추가, 확대한 것이다.

종합고용지원센터측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마련된 방안으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라진 일자리 75%가 여성 몫

한국노동연구원 발표

최근 경제위기로 사라진 일자리 네 개 중 세 개가 여성 일자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윤자영 연구원은 15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주최한 ‘사라지는 여성 일자리, 악화되는 여성고용! 넘어설 대안은?’ 토론회에서 ‘경제위기? 여성노동위기! : 여성 실업 현황과 실업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윤 연구원은 올해 3월 남성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5만명 감소했지만 여성취업자는 같은 기간 14만8천명이나 줄어 여성이 전체 취업자 감소규모의 75%를 차지했다는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이 분석에서 성별·연령별로는 30

대 여성, 학력별로는 저학력 계층, 종사상 지위로 보면 일용직, 사업장 규모별로는 1~4인 영세 소규모 사업장,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각각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윤 연구원은 하지만 실업자 통계만으로는 이런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같은 기간 남성 실업자수는 11만2천명 늘었지만 여성 실업자수는 3만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소개했다.

일 자리를 잃은 여성들이 가사나 육아에 종사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식실업률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업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능력보다 성실한 직원 더 소중”

중소 인사담당자 설문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성실한 직원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최근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233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직 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가 꼭 붙잡는 유형으로 ‘근면·성실한 직원’을 지적한 답변이 36.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27.5%가 ‘업무 성과가 높은 유형’을 들었고, ‘책임감이 강한 유형’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13.3%에 그쳤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중소기업들이 직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

로 ‘근면·성실성’을 꼽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에서 직원들의 평균 이직률은 11.7%로 조사됐다.

이직률이 5% 이하라는 응답이 48.5%로 가장 많았고, 이어 6~10%(20.2%), 11~15%(9.9%), 16~20%(6.4%), 26~30%(3%), 36~40%(3%) 순으로 많은 답변이 나왔다.

이직률이 높은 분야로는 제조·생산(21.5%), 영업(18%), 서비스(10.3%), 연구개발(7.7%), 재무·회계(6%)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 사유로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29.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인 ‘연봉 불만족’(25.3%) 등 순이었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배우실 것입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점 (062) 227-9940

광주광역시 서구 서문동 4-1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홍성점 (063) 227-9970

익산점 (063) 851-2422

산행안내

6월 17일(수) 1박 2일

- 1박 2일 산행 (6월 17일(수) ~ 18일(목))
- 1박 2일 산행 (6월 18일(목) ~ 19일(금))
- 1박 2일 산행 (6월 19일(금) ~ 20일(토))
- 1박 2일 산행 (6월 20일(토) ~ 21일(일))
- 1박 2일 산행 (6월 21일(일) ~ 22일(월))

K2 부흥사업

K2에서 수입판매하는

아이디동선화 구입사

2~3만원 현금 보상

기간 6.21일까지

02-244-0011

AT17

AT17은... (text partially obscured)